

###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원, 제12대 후반기 의장 출마 선언

# “시대적 책임·사명 완수”

“권한 커진 집행부  
감시·견제 강화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의장 출마를 선언한 문승우 의원(재선, 군산시)이 17일 오전 10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권한이 커진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전북특별법의 특례와 관련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 특례와 민생 조례를 발굴해서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야 할 사명도 부여받았으며, 시대적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 민의의 정당으로 의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자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후보 자신이 “중소기업자 출신으로 민생경제를 잘 알고 있으며, 30년간의 사회봉사과 체육·언론 분야에서 폭넓게 쌓은 경험을 살리고, 지난 11대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식견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 사항은 의회의 독립성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의장 출마를 선언한 문승우 의원이 17일 오전 10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회법 제정 추진, 민생정책 의회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입법 정책 지원서비스 제공,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위한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위의 의회 이관과 교육청 직원의 파견제 개선, 함께 만드는 도의회를 위한 의장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의 5대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잃고 싶어하는 심장 같은 의회가 희망의 열정으로 뛰어 의회를 혁

신하겠다. 도민과 공감하고 메시지를 공정하게 처리해 공신력 있는 의회로 역사가 남도록 만들겠다.”라며, 중석불축(中石不燬: 정신을 집중하여 모든 힘을 다하면 어떠한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중국 고사어)을 마음에 새기며 의장선거에 임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날 문 의원의 기자회견장서 군 산을 지역구로 둔 강태창·김동주·박정희 의원이 동행해 문 의원의 의회 출마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기자회견의 대담에서 문 의원은 같

은 특별자치도인 강원도의회와 비교를 하며 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도의회 신속 등도 신

지방의회 독립성·위상  
강화 위한 법 제정 추진

민생정책 의회 실현 위한  
입법 정책 지원서비스 제공

감사위 의회 이관  
교육청 직원 파견제 개선

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문 의원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세 의장 후보는 모두 기자회견과 회견을 마치고, 정중동의 치열한 선거 운동에 임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도의장 선거 못지않게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민들은 이번 도의회 후반기 도 의장 선거가 너무 치열하고 혼탁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의원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촉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폐어플레이 정식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기대 바 꾸며 반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대민지원관 제도 등 의정 지원 절실”

윤정훈 도의회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윤수봉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하여 16명의 초선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윤정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원 교육과 원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고 오늘 수렴된 의견은 후반기 신임 의정단체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정훈 원내대표는 “당의 정강 정책

과 당의 공약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실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의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원내대표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민지원관 제도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민지원관 제도는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지역의 민원 해결과 주민의 요구를 도정에 반영하고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사안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정치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청년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신임 의정단체가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생화 사용 촉진

권요안 전북자치도의원 발의 조례안, 농산경위심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농산경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만리식물 보급·문화조성,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홍보 등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造花)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요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화훼산업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지진 피해 대응 후속조치 철저히 해야”

김관영 도지사, 의료계 집단휴진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 대응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대응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7일 군부회의에서 다행히 부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정부는 1주일 내 더 큰 여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피해조사, 잔해물 제거 등 복구를 신속히 하고 도민의 일상 복구를 위해 심리회복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시설물부터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기고, 민간에도 내진보강을 적극 권장해 내진설계를 이 향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며, “전북에서도 일부 병·의원이 집단휴진



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의원 개인 상황을 알리고, 도민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도가 적극 나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더해 “도에서도 상황반을 가동하여 병의원과의 상시 소통하면서 도민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 업무의 성공적 마무리와 하반기 업무 사전 준비 및 국정질문 후속조치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바이오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지 최선을 다하는 도전경성의 자세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고흡사당지정기 부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고향사랑지정기부제 활성화에 차질없이 적극적으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여름철 수상안전 및 폭염 피해대책 철저히 당부했다.

김 지사는 “수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수칙과 생존요령을 교육하고 홍보하라”면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신속한 정보제공과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건설현장 등의 폭염피해 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며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소통하고 도시사가 직접 서신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폭염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진행

남원시의회(의장 전정기)는 지난 14일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남원시 예산액은 1조3,300억원이며, 세입 1조3,378억원, 세출 1조955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23억원, 예비비는 40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89억원이다.

심사 위원들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사전 계획 부족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주의를 당부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돼 지역과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남원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3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을 최종 확정한다. /남원=김기우 기자

장수군의회, 올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4월 제360회 임시회에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한주)를 구성하였으며 사업비 2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군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현장 중심으로 11개소를 선정, 현장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교양선 장수C 연결도로 개설사업 △장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낭비에 의문을 제기하고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자치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5만건 622억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5만건, 6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1월, 3월)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하고 있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일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납부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해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번호, 텔레뱅킹(ARS) 및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회계연도 결산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17일,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심사를 이어갔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은 교육국 소관 중등교육과의 건설비 이의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과정 운영사업 건설비의 경우, 감계고등학교의 온라인 학교 신설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이 아닌 1~2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해 이를 전액 이월한 점을 지적하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필요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시군에 지원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과 관련,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은 긴급한 사안으로 수요 발생 시 사용가능한 예산임에도, 일반적 자산취득비 또는 감사비 등으로의 지출은 집행 성격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수요 요청 시, 신중한 검토와 함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교육유권센터의 교육상담실 구축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추후 취지에 맞는 예비비 사용을 당부했다.또한,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며, 전국적으로 세입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은 2023년도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 학생 및 교직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며, 학생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교직원의 경우 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스마트기기가 애용단리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스마트기기의 적극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은 전북과학고등학교 전문대 설치부지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 본예산 편성 당시 설치부지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하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꼼꼼한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결핵협회 전북지부에 성금 전달

시도의회의장협 정채사업 일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17일, 결핵퇴치를 위한 방역확진 및 독려, 생필품 지원 등에 써달라며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에 성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역확진 및 지원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높은 완치율을 높이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23년 기준, 전북 지역에서는 640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으며, 환자 발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환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결핵 치료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화상 방역 확인 기기를 통해 취약계층의 방역 확인과 약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진료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금 진료동행 등에 소중한 성금이 쓰여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내 공중보건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 ‘국가유공자 자활능력 향상에 큰 기여’

박정규 도의원, 전북자치도 보훈단체협의회 감사패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 보훈단체협의회(이성만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보훈단체협의회 이성만 회장은 “박정규 의원이 전북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자활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정규 의원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로서 감사패 수여의 진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